

Timeline Of Electronic Computers

컴퓨터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고 3개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 사건을 고르기란 쉽지 않았다. 3가지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소개하려고 한다. 일단 첫 번째 사건은 Bombe의 완성이다. 흔히 말하는 계산기 이런것들은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이 Bombe의 완성은 인간 스스로 암호를 해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인간을 대신해주는 단계의 첫 번째 도달 단계이기 때문이다. 21세기 컴퓨터란 인간이 하기 귀찮은 일 혹은 어려운 일을 대신해주는 물건중 하나인데 과거에는 모든 일을 인간이 혼자했으며 인간이 자동화를 만나게 된 건 산업혁명 이후이다. 하지만 자동화를 넘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 것은 bombe이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를 넘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의 시발점을 bombe의 완성으로 보고 싶다. 인류는 이로서 미래의 문명을 연 것이다.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사건으로 고르게 되었다.

두 번째 사건은 컴퓨터안에서의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던 사건이다. 이 사건은 컴퓨터의 행동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고 보인다. 이 전까지의 컴퓨터는 군사 전력 도구로서 암호를 해독하거나 단순 계산을 활용하는 단계로 기계와 다름이 없었지만 그 때 당시 차세대 메모리를 검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. 즉 컴퓨터의 활용도를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래의 문명을 열고 한 발자국 발걸음을 한 것이라고 보게 되어서 두 번째 중요한 사건으로 고르게 되었다.

세 번째 사건은 IBM Univac의 미국인구 조사의 사용이다. 위에서도 말했다 싶이 기존의 컴퓨터는 군사 전력 도구였지 상용화된 도구가 아니었다. 이러한 IBM의 상용화 컴퓨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컴퓨터가 보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. 이제 전력도구가 아닌 보편적 인류에게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. 그래서 보다 컴퓨터가 인간의 삶에 밀접하게 들어오는 계기를 열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골랐다.

이렇게 3가지의 컴퓨터의 중요 역사를 훑어봤는데 컴퓨터란 100년 안되는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인간의 삶의 불편한 부분은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다 편리한 삶을 살고 있다. 역사는 미래를 보는 창이다. 이러한 역사를 알게 되어서 컴퓨터의 이해도를 높여 나 역시 미래에 일조하고 싶다.